

# 광양시, 청년정책 확정 정착 환경조성 박차

## 청년꿈터 등 5개분야 35개사업 미디어·젊음의 거리 운영 확대

광양시가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청년을 위한 정책 5개 분야별 예산 178억원 투입에 이어 청년 요구에 발맞춰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 농장 조성 등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청 상

황실에서 '2023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정인화-광양시장(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추진한 청년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이 꿈을 펼치는 청년친화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5개 분야 35개 사업이 담겼다. 분야별로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등 6개

참여·권리 사업 △기업맞춤형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 등 10개 일자리 사업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5개 주거사업 △광양청년꿈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8개 복지·문화사업 △청년 역량교육 사업 등 6개 교육사업 등에 1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청년의 역할과 요구가 커지는 추세에 맞춰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젊

음의 거리 조성 △청년 농업인 대학 운영 신규사업을 추가했으며 △청년취업 교육 기관 운영과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청년들이 활력 있게 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안이자 기성세대 역할"이라며 "청년정책의 발굴과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 보성판소리성지 매주 토요일 '토요상설 락(樂)' 연다

보성군은 오는 5월27일까지 12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보성판소리성지에서 '토요상설 락(樂)!' 공연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공연장소는 보성판소리성지 전수교육관 2층이며 주요 프로그램은 상설공연(창극·퓨전극·판소리)과 체험 놀이다. 올해 공연에는 3월 창단한 보성군립국악단이 공연에 참여할뿐 아니라 타악그룹 얼쑤, (사)구례향제줄풍류보존회, 호남연희예술단 등 전통판소리 공연은 물론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 낼 창극, 퓨전극 등 공연을 통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선보일 예정이다. 판소리성지는 판소리 전수교육관, 비조 박유전선생 기념비, 판소리 전시관, 판소리 다섯마당, 야외마당, 정음민 생가, 탐방로 등이 있으며 주변에는 보성차밭과 울포솔밭해변 등 관광지가 있다. 보성판소리성지(061-852-5203)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지기자

## 광양시, 물절약 수용가 상수도요금 감면

### 최대 13%까지 한시 적용

광양시는 가뭄 극복을 위한 물 절약 추진의 일환으로 10% 이상 물 절약을 실천하는 상수도 수용가를 대상으로 10%에서 최대 13%까지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되는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물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물 절약 안내문을 배포했다.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전 시민 20% 물 절약 실천'을 호소해 오고 있다.

상수도 요금감면은 수용가의 물 절약 실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3월 광양시의회 의결을 거쳐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3월 사용량부터 가뭄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3월 사용량부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여 수도 사용량을 10% 절감한 경

우 상수도 요금의 10%를 감면하고 10%를 초과해 절감한 경우 최대 40%까지 구간별로 11%~13%까지 감면한다. 다만 △물 사용량이 0인 경우 △신규급수 △이사 정산 △육내 누수 △급수 정지·중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요금감면은 수도물을 사용하는 광양시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별도 신청 없이 감면 대상 수용가는 일괄 적용된다.

광양시청 상수도과(061-797-3584, 3587, 496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 상수원을 공급하는 수어댐은 주암댐과 섬진강댐에서 흘러보내는 하천유지수와 섬진강댐 하류 및 다압취수장 상류로 유입되는 강우를 수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 주암댐은 가뭄 대응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 (저수율 34%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어댐도 '심각단계'로 관리하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여수경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여수경찰이 봄 행락철을 맞아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등 성범죄 발생 위험성에 대비 불법카메라 근절에 나섰다. 여수경찰 제공

## 순천만정원박람회, 25일 프리 오픈 행사

### 3만명 한정 박람회장 둘러보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사전 체험할 수 있는 프리 오픈 행사가 오는 25일 10시부터 14시까지 열린다.

순천시는 이번 프리 오픈을 통해 3만명에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가장 전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특별 체험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

특별 체험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1만 매) 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https://scbay.suncheon.go.kr/) 및 순천시청(https://www.suncheon.go.kr/kr/) 누리집 프레오픈 행사 체험권 예매(2만 매)를 통해 누구나 제공 받을 수 있다.

조직원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 '프레오픈' 행사는 시민들과 박람회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사전 입소문을 통한 박람회 붐 조성 및 이슈화를 위해 준비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는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도심 등 3개 권역에서 개최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 순천 선암사 소장 불교문화재 특별전

### 순천대박물관, 10월27일까지

천년고찰 순천 선암사의 소장 유물들이 최초로 대중에게 일괄 공개된다.

국립 순천대학교 박물관(관장 강성호)은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세계유산 조계산 선암사 소장 불교문화재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각국사 도선 진영', '대각국사 의천 진영', '33조사도', '선암사 동종', '삼층 석탑 사리장엄구' 등 보물 5점과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은입사향로', '선암사 중수비(탁본)' 등 전남 유형문화재 3점 등 127점 선암사 소장 유물이 공개된다. '세계유산 선암사' 특별전은 선암사가 창건된 이래 선암사 소장 유물이 외부로 반출돼 공개되는 '첫 번째 속세 나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선암사의 유물은 한국불교 태고종과 대한불교 조계종의 분규로 경내

에서만 관람할 수 있었지만, 올해 4월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기념해 태고종과 조계종 양측이 선암사 문화재를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순천대 박물관이 특별전을 기획했다.

강성호 순천대 박물관장은 "세계유산 선암사는 간화선의 수행 정신과 경전의 강학 전통 및 염불 수행의 승풍을 지켜온 청정도량이자 천년고찰로서 많은 불교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전이 순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암사의 역사와 소장 문화재의 진면목을 소개하고, 순천의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시 의의를 밝혔다.

특별전 개막식은 23일 오후 2시 순천대 박물관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전시 공간은 2층 강운전시실에 마련됐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다. 순천=배서준 기자

## 장흥군 "얼레지꽃 피는 천관산서 숲체험해요"

코로나19로 3년 동안 제한적으로 진행했던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재운영된다.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은 오는 12월까지 천관산 숲탐방로에서 숲체험 프로그램과 목공예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천관산(723m)은 호남 5대 명산으로 봄에는 진달래꽃, 얼레지꽃, 여름에는 나리꽃, 가을에는 억새와 기암괴석, 겨울에는 동백림과 비자림으로 유명하다.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에서는 숲탐방로 숲해설 프로그램과 자연물을 이용해 동백브로치, 손수건, 나무목걸이 등 산림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천관산에 군락을 이루는 동백림과 비자림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 수소경제 육성계획 수립 착수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순천시가 지난 20일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21일 순천시는 수소경제 육성 계획 수립을 통해 '순천형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 미래 순천 100년 먹거리로 삼는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전략 수립, 수소산업 특화단지 조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수소도시 조성,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등이다. 에너지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재)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도 연구를 수행한다.

순천시는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제안된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의견을 용역 내용에 반영해 순천시민의 특성이 반영된 수소 특화 산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향후 중간 보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11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해 넷제로를 실현에 나서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